

맞벌이 가족의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Grandmother-Grandchild Relationships on Child's Self-Esteem in Dual-Earner Families

장 희 경**

Jang, Hee Kyung

조 병 은***

Cho, Byung Eun

ABSTRACT

The grandmother role may be an important support network for dual-earner families and become more saliency among those children who are living with their grandmothers than those who are no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characteristics on children's solidarity with their grandmothers and grandmothers' effects on grandchildren's self-esteem.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429 grandchildren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The major findings showed that (1)Solidarity between grandmother and grandchild in dual-earner families was associated with living arrangement. (2)Children's self-esteem in dual-earner families was not related to living arrangements with their grandmother. (3)Factors predicting solidarity between grandmother and grandchild and the grandchild's self-esteem differed by living arrangement. Solidarity between grandmother and grandchild was explained by grandmother-mother relationships, health of grandmother,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occupational status of father for children living with their grandmothers. For those children not living with their grandmothers, grandmother-mother relationship, the educational level of father, families' economic level,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health of the grandmothe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grandmother-grandchild solidarity. (4)The regression of predictor variables on self-esteem for children living with grandmother revealed that grandmother-grandchild

* 본 논문은 1995년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해전문대학 강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solidarity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followed by occupational status of father,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For those children who were not living with grandmothers, parent-child relationship,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grandmother-grandchild solidarity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mother were also significant factors in that order.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로 기혼 취업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기혼 취업 여성들은 가정과 직업상의 이중역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기혼 취업 여성의 문제점으로 직장에 나갔을 때 자녀 양육 및 관리와 지도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김숙영, 1984; 안선영, 1987; 황인향, 1993). 또한 맞벌이 가족의 자녀문제로서 부모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의 부족과 모부재시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인간발달적 견지에서 인성발달의 문제를 제기도 한다(김양희, 1993; 서동인, 1991; 유영주, 1985).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많은 취업주부 가족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확대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인, 1985, 1991; 이숙현, 1990; 황인향, 1993). 이와 같은 결과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세대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가되고,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으나 삼세대 가족이 비교적 많으며 혈연 관계가 강한 가족 관계에서 있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이 확대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부모이외에 조부모가 손자녀의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으로서 모부재시 많은 도움

과 사랑을 줌으로써 손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손자녀의 전생애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가족학자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유안진, 1980; Kivnick, 1982; Kornhaber & Woodward, 1981; Mead, 1934; Presser, 1989). 그러나 현재까지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으며, 더욱이 조부모와의 관계를 손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연관지은 연구는 백문화(1992)의 연구에서 다루었을 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원체제가 필요한 맞벌이 가족이 조부모와 동거 및 비동거함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간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 중에서도, 지원체제로서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로 조부모-손자녀 관계 즉 조부모와의 여러가지 측면의 결속도가 동거·비동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로, 학동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환경적 변인중에서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영향을 규명하여, 보다 원활한 가족체계 속에서의 아동발달을 고려해 보고, 그에 대한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조부모-손자녀 관계

손자녀-조부모 관계를 본 연구는 별로 많지 않으며, 주로 손자녀 입장에서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부모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손자녀에게 하는 역할(서동인, 1991)과 청소년과 대학생인 손자녀가 느끼는 조부모와의 친밀도(김연수, 1993; 박의순, 1992; 백문화, 1992; 서정기, 1993)를 조사하였다. 손자녀의 연령이 다양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손자녀와 조부모 관계에 끼친 변인들을 살펴보면, 손자녀의 나이, 성별, 조부모의 성별, 건강, 교육수준, 가족구조, 접촉빈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역할이나 친밀도는 접촉이 많을수록 조부모와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조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조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 관계가 좋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부모와 손자녀의 부모와의 관계가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유대감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 매개변인내지 공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손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서, 조부모세대(α 세대)와 손자녀세대(Ω 세대)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도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부모와 평상시에는 떨어져 살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조부모의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때 즉 부모의 이혼이나 취업과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조부모가 가족 패턴의 유지나 가족의식의 계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가정의 인솔자 또는 감시자(family watchdogs)로써 등장하여, 손자녀 양육이나 여러 가지 돕는 행동을 보여준다고 한다

(Bengtson, 1985; Burton, 1992; Gladston, 1988; Pearson, Hunter, Ensminger & Kellam, 1990; Presser, 1989; Troll, 1983).

그러나 동거유무에 따른 친밀도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인다. 즉, 백문화(1992)의 연구에서는 조모와 동거하는 청소년들이 비동거하는 청소년들보다 조모와의 친밀도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고, 박의순(1990)의 연구에서는 동거유무에 따라서 친밀감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거유무에 따른 친밀도의 상반된 연구 결과는 백문화(1992)의 연구대상자들이 박의순(1990)의 연구대상자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모와의 동거유무가 친밀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의 특성, 손자녀가 조부모에 느끼는 애정적인 감정,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가지는 부양의식, 도움의 양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간의 결속이라는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조부모-손자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나 조부모와의 관계가 어린이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보지 못했다. 특히 지원체계가 필요한 맞벌이 가족에서는 조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더 뚜렷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부모와의 관계가 동거·비동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 조부모와의 관계가 손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동거·비동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밝혀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

학령기 아동에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고,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의 개인적 특성

과 가정환경 변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김경연, 1985; 1987; 박수경, 1992; 손화희, 1989; Belle & Longfellow, 1984; Gecas & Schwalbe, 1986)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지위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변인에서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전문직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좋다고 지각될수록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김명자, 1978; 박수경, 1992; 손화희, 1990; 안경영, 1992; 윤현선, 1983; 한유미, 1991).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박수경, 1992; 손화희, 1990; Gecas & Schwalbe, 1986).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자녀 관계만을 보았으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을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윤숙(1987)의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인식구조 조사에서, 조부모와 동거하고자 하는 의식이 조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 77.5%, 비동거하는 집단에서 66.3%를 나타낼을 보고하였고, 각각의 집단에서 조부모와 동거를 좋아하는 이유로 '귀여워해 주는 것이 좋아서'가 각각 43.3%와 39.8%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세대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한다.(Kivnick, 1982; Konhaber & Woodward, 1981; Mead, 1972; Presser, 1989). 이처럼 조부모들이 그들의 손자녀들을 매우 귀여워해 준다는 사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제시한 중요타인의 반영적 효과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오늘날 증가추세에 있는 맞벌이 가족이 확대

가족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는 조부모가 중요한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들과의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에서 지원체계로서의 조모가 손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 동거하는 아동은 비동거하는 아동보다 조모와의 결속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 동거하는 아동은 비동거하는 아동보다 아동의 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의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조모와의 결속도가 높은 아동은 결속도가 낮은 아동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에 따라 조모-손자녀간 결속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다를 것이다.

가설 5.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다를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를 가진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강원도 영동지방에 소재한 7개 국민학교(삼척

시 2개교, 삼척군 1개교, 동해시 3개교)가 임의로 선정되었으며, 사회계층면에서 표본이 편포되지 않도록 지역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하였다.

조사는 1994년 7월 4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국민학교 남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학교에 배부하여 기재하도록 하였고, 회수된 질문지 중 미비한 질문지를 제외한 429부(85.8%)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조모와 손자녀간의 결속도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결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내용은 Bengtson과 그의 동료들(1982)이 제시한 세대간의 가족 결속도 개념들에 기초하여 조병은(1990)과 최정혜(1991)가 사용한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척도를 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모-손자녀간의 결속도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모-손자녀간 결속도 척도는 구조적 결속 1문항, 접촉적 결속 2문항, 애정적 결속 5문항, 가치일치적 결속 2문항, 기능적 결속 12문항 그리고 규범적 결속 5문항 등의 6개 하위 영역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속도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에서 산출한 신뢰계수는 Cronbach로 애정적 결속($\alpha=.78$), 일치적 결속($\alpha=.51$), 기능적 결속($\alpha=.83$), 규범적 결속($\alpha=.73$)이며 구조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을 모두 합한 결속도 전체의 α 값은 .8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부모-자녀 관계 및 조모-모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및 조모-모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내용은 본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

여 각각 3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반응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점하였다.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 α 계수로 부모-자녀 관계는 .68, 조모-모의 관계는 .5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조모-모의 관계는 손자녀-조부모간의 결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공변수의 역할을 한다.

3)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의 SEI(Self-Esteem Inventory)를 김경연(1987)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척도는 2점 척도이며,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73$ 이다.

4)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이상으로 나누어 1점에서 6점 순위로 구분하였으며, 부모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무직 1점에서부터 전문직 6점까지 6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정의 생활수준은 '매우 못사는 편'에 1점, '못사는 편'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잘사는 편'에 4점, '매우 잘사는 편'에 5점으로 평점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생활수준을 표준화하여 합하였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공변수의 역할을 한다.

5) 조모의 건강상태

조모의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에서 "매우 좋다"의 5점 척도로 손자녀-조모 결속도에 영향을 주는 공변수이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 176명(41%), 여자 253명(5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집단별로 보면 11세가 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세가 38.9%로 많았다.

부의 학력에서는 고졸이 49.4%, 중졸이 22.4%의 순으로 많았으며, 모의 학력에서도 역시 고졸 45.5%, 중졸 32.9%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분포에서 고졸 중졸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을 보였다. 부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사무직 기술직 종사자가 전체의 50.8%를 차지하였고, 모의 직업 역시 일반사무직 기술직이 전체의 40.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서는 보통이 74.6%, 잘사는 편이 21.4%로 아동들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대부분 보통 이상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조모의 선택은 친조모 64.1%, 외조모 35.9%로 친조모를 선택한 손자녀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대상 지역이 지방이고 동거가족 아동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87%가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분포를 보였고, 건강상태는 70%이상의 조모들이 보통 이상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분포에서는 50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조모와의 거주상태는 동거 26.6%, 걸어서 가는 거리 19.3%, 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 32.4%, 차로 4시간 이내의 거리 11.9%, 차로 8시간 이내의 거리 9.8%로 나타나, 확대가족 유형보다는 핵가족 유형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모와의 대면적 접촉에서는 71.7%의 손자녀

가 조모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대면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대면적 접촉빈도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높은 빈도의 접촉이다(박의순, 1990; 백문화, 1992; 서동인, 1989). 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빈도가 높은 이유는 국민학생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맞벌이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지역이 지방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조모와 동거/비동거 집단의 조모-손자녀 결속도, 부모-자녀관계, 조모-모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전반적 경향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영역의 결속도 수준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규범적 결속과 애정적 결속에서는 조모와 높은 결속 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자녀 관계 및 조모-모의 관계 수준은 5점 척도에서 모두 4점을 넘어,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및 조모-모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표 1> 조모와 동거/비동거 집단의 영역별 결속도, 부모-자녀관계, 조모-모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

영역	점수 범위	동거(N=114) 평균(표준편차)	비동거(N=315) 평균(표준편차)
접촉적	1-8	7.33(1.53)	4.67(1.74)
애정적	1-5	4.38(0.61)	4.16(0.71)
일치적	1-5	4.01(0.72)	3.83(0.78)
기능적	1-5	3.62(0.72)	3.12(0.73)
규범적	1-5	4.52(0.54)	4.39(0.64)
부모-자녀 관계	1-5	4.37(0.60)	4.13(0.76)
조모-모 관계	1-5	4.51(0.60)	4.17(0.74)
아동의 자존감	1-2	1.53(0.16)	1.51(0.17)

3. 조모-손자녀 결속관계에 대한 조모와의 동거유무 비교

6영역에서의 조모-손자녀 결속도(중속변수)에 대한 동거·비동거의 순수한 효과를 알기 위하여 중분류분석(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조모의 건강과 조모-모의 관계는 공변수이다.

〈표 2〉의 중분류분석에서 베타값을 살펴보면, 접촉적 결속과 기능적 결속 및 전체적 결속에서

동거유무의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공변수를 통제 한 결과 모든 결속관계에서 설명력이 낮아졌으나, 접촉적 기능적 및 전체적 결속에서는 여전히 유의한 독립적 효과를 미쳤다. 즉, 접촉적 결속과 기능적 결속 및 전체적 결속의 높은 점수는 조모와 비동거하는 집단에서보다는 동거하는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 동거하는 아동은 비동거하는 아동보다 조모와의 결속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2〉 조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른 영역별 결속도 및 전체 결속도의 중분류분석

	동 거(N=114)		비동거(N=315)		Eta	Beta
	Deviations from Mean		Deviations from Mean			
	Unadjusted	Adjusted	Unadjusted	Adjusted		
접촉적	1.94	1.79	-.71	-.65	.57***	.53***
에정적	.15	.05	-.06	-.02	.13**	.05
일치적	.12	.03	-.04	-.01	.10*	.03
기능적	.37	.25	-.13	-.09	.29***	.20***
규범적	.10	.02	-.03	-.01	.09*	.01
전체결속	11.09	8.30	-4.05	-3.03	.41***	.30***

공변수: 조모의 건강, 조모-모의 관계

*P<.05 **P<.01 ***P<.001

4.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모와의 동거유무 비교

존중감은 공변수 통제 전 후 모두 동거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모와 동거하는 아동이 비동거하는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3〉의 중분류분석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

〈표 3〉 조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중분류분석

	동 거(N=114)		비동거(N=315)		Eta	Beta
	Deviations from Mean		Deviations from Mean			
	Unadjusted	Adjusted	Unadjusted	Adjusted		
자 존 감	.41	.14	-.15	-.05	.06	.02

공변수: 부모-자녀 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5. 조모와 동거 및 비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모-손자녀 상/하 결속집단의 비교

〈표 4〉의 동거집단의 중분류분석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조모-손자녀 상/하 결속 집단간에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공변수를 통제하기 전에는 $P < .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공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독립적인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동거 집단에서 조모와의 결속도가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비동거 집단의 중분류분석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공변수를 통제하기 전에는 $P < .05$ 의 수준에서 조모-손자녀 결속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공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결속관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모와의 결속도가 높은 아동이 결속도가 낮은 아동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동거 집단에서는 지지되었으며, 비동거 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표 4〉 동거/비동거집단 조모-손자녀 결속관계와 공변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중분류분석

	동거집단(N=114)의 상집단(N=65)		조모-손자녀 결속도 하집단(N=49)		Eta	Beta
	Deviations from Mean		Deviations from Mean			
	Unadjusted	Adjusted	Unadjusted	Adjusted		
자 존 감	.81	.64	-1.08	-.85	.24**	.19*
	비동거집단(N=315)의 상집단(N=166)		조모-손자녀 결속도 하집단(N=149)		Eta	Beta
	Deviations from Mean		Deviations from Mean			
	Unadjusted	Adjusted	Unadjusted	Adjusted		
자 존 감	.55	.16	-.61	-.18	.13*	.04

공변수: 부모-자녀 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6. 조모-손자녀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동거유무 비교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에 따라 조모-손자녀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손자녀의 조모-손자녀간 결속에서는 조모-모의 관계, 조모의 건강, 부모-자녀 관계와

부의 직업순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설명되었으며($R^2 = .29$, $F = 3.14$, $P < .001$), 이들이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정도는 29%이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손자녀의 조모-손자녀간 결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조모-모의 관계, 부의 교육,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조모의 건강순으로 나타났으며($R^2 = .30$, $F = 9.75$, $P < .001$), 이들이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정도는 30%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에서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에 따라 조모-손자녀간 결속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다를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한편, 조모와의 동거·비동거 집단에서 조모-손자녀 결속 관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는 모두 조모-모의 관계로 나타나, 조부모-손자녀의 관계는 직접적인 세대관계가 아니므로 중간세대인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의 관계에 의존

된다는 선행연구들(김연수, 1993; 박의순, 1990; 백문화, 1992; 서동인, 1991; 서정기, 1993; Baranowski, 1982; Kornhaber & Woodward, 1981,1985; Robertson, 1976)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5〉 조모와의 동거/비동거 집단에서 조모-손자녀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조모-손자녀간의 결속도						
단계	동거(N=114)			비동거(N=315)		
	독립변인	β	Partial R ²	독립변인	β	Partial R ²
1	조모-모의 관계	.28**	.14	조모-모의 관계	.43***	.25
2	조모의 건강	.24**	.07	부의 교육	.09	.02
3	부모-자녀 관계	.18*	.04	가정경제수준	.11**	.01
4	부의 직업	.14	.02	부모-자녀 관계	.10*	.01
5				조모의 건강	.09	.01
			R ² =.29			
			F=3.14***	R ² =.30		
				F=9.75***		

7.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동거유무 비교

조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조모와의 결속도, 부의 직업, 모의 교육,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자녀 관계가 있으며, 이들이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정도는 23%(F=2.12, P<.05)로 나타났다. 또한 조모와 비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부모-자녀 관계, 가정의 경제수준, 조모와의 결속도, 모의 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정도는 18%(F=4.67, P<.001)이다.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경우의 집단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들(김용문, 1977; 박수경, 1992; 손화희, 1990; 임희선, 1989; Amato, 198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의 집단에서는 조모와 손자녀의 결속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조부모와 손자녀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은 손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백문화, 1992; 유안진, 1980;

Kivnick, 1982; Kornhaber & Woodward, 1981; Mead, 1972; Presser, 1989)을 지지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적어도 맞벌이 가족에 있어

서는 조모와의 동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조모와의 동거/비동거 집단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조모-손자녀간의 결속도						
단계	동거(N=114)			비동거(N=315)		
	독립변인	β	Partial R ²	독립변인	β	Partial R ²
1	조모와의 결속도	.23**	.10	부모-자녀 관계	.28***	.10
2	부의 직업	.27**	.04	가정의 경제수준	.15**	.04
3	모의 교육	-.22*	.03	조모와의 결속도	.14**	.02
4	가정의 경제수준	.15	.02	모의 교육	.09	.01
5	부모-자녀 관계	.14	.02			
			R ² =.23			
			F=2.12*	R ² =.18		
				F=4.67***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 국민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모와의 동거유무 및 조모-손자녀 결속 관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조모-손자녀 결속관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맞벌이 가족에서의 조모-손자녀간 결속관계는 조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모와 동거하는 손자녀 집단이 비동거하는 손자녀 집단보다 공변수(조모-모의 관계와 조모의 건강)를 통제 한 후에도 접촉적, 기능적 및 전체적 결속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속 관계를 나타내었다.

2. 맞벌이 가족에서의 학동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공변수(부모-자녀 관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통제후 조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학동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조모-손자녀 결속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모와 결속관계가 높은 손자녀 집단이 결속관계가 낮은 손자녀 집단보다 부모-자녀 관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있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 관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변수로 통제하기 전에는 조모-손자녀 결속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공변수를 통제 한 후에는 결속 관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모와 동거하는 손자녀 집단에서 조모-손

자녀간의 결속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조모-모의 관계, 조모의 건강, 부모-자녀 관계, 부의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손자녀의 집단에서는 조모-모의 관계, 부의 교육,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자녀 관계, 조모의 건강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모-손자녀 결속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조모와의 동거 및 비동거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5. 맞벌이 가족에서 학동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조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조모와 손자녀간의 결속 관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모의 교육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영향을 미쳤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맞벌이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다고 지각될수록, 조모와 손자녀간의 결속 관계가 높을수록, 모의 교육이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조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른 조모-손자녀 결속도에서 조모와 동거하는 손자녀 집단이 모든 결속도에서 높은 결속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공변수 통제 후에는 접촉적, 기능적 및 전체적 결속에서만 높은 결속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공변수 통제 전 조모와 동거하는 집단이 애정적, 가치일치적 및 규범적 결속에서 높은 결속 관계를 나타낸 이유를 추측해 보면, 맞벌이 가족에서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모가 취업모의 가정 내 역할을 많이 도와줌으로써 취업모의 조모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게 되고, 이같은 태도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녀들 역시 조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 됨으로써 모든 영역의 결속이 비동거하는 손자녀들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것은 조모-모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제하자 애정적, 가치일치적 및 규범적인 측면에서 비동거하는 손자녀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기능적 결속 및 전체적 결속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맞벌이 가족에서 동거하는 조모의 역할이 동거하지 않은 조모와 비교해 볼때, 보다 기능적이고,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조모-손자녀 결속 관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 조모와 비동거하는 아동은 결속 관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조모와 동거하는 아동은 결속 관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모가 손자녀와 동거할 때 많은 직접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지지체계의 역할까지 하여 아동의 자아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동거하는 집단에서 조모와의 결속 관계가 높은 아동이 자아존중감 역시 높게 나타난 결과는 조부모와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은 손자녀의 전생애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들(유안진, 1980; Kivnick, 1982; Kornhaber & Woodward, 1981; Mead, 1972; Presser, 1989)을 입증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변수의 역할은 가족 관계와 같은 복합적인 환경내에서 조건의 통제외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자료의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변량분석에만 의존한 결론은 지양하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세째, 맞벌이 가족 조모-손자녀 결속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동거유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가족 형태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조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는 조모가 중간세대인 부모세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손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으로써, 조모 자체의 영향력이 결속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동거하는 집단에서는 조모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적기 때문에 조모-손자녀 관계는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중간세대인 부모세대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세대의 관계에서 중간 세대의 교량적 역할은 특히 비동거하는 집단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조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가족형태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 변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조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는 조모와의 결속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 발달에 조모가 제공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부의 직업이 영향을 미친 사실은 확대가족에 있어서 아버지는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핵가족에서의 영향력 보다는 훨씬 크게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동거 집단에서 모의 교육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모의 경우 자신의 개성보다는 가족 전체의 분위기나 화합을 더욱 중시함에 따라 가족의 원만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이것이 결국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게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조모와 비동거하는 집단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핵가족 내에서의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으며, 또한 동거가족과는 달리 부의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은 핵가족에 있어서 어머니가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부모-손자녀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관계이므로, 중간세대인 부모세대가 매우 중요하고, 조부모의 역할이 가정의 인솔자 또는 감시자(family watchdogs)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해 준 결과이므로, 가족 관계학에서의 조부모 역할을 잘 나타낸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가정에서의 조부모는 성인자녀에게 일방적 부양의 수혜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보편적 학문적 관점은 달리, 적어도 맞벌이 가족에서의 조부모는 모부재시 손자녀에게 의미있는 상호작용과 여러 가지 도움과 사랑을 줌으로써 손자녀의 발달에 바람직한 지원체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의 노인들의 소외 및 역할 부재가 노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맞벌이 가족에서는 조모가 가족의 지지체제로써의 역할을 하여 사회적 지지체제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 확대가족과의 동거는 하나의 바람직한 가족형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라고 하겠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모-손자녀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및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한 측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쌍방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지지체제로써의 역할을 맞벌이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으나, 이외에 이혼 가족이나 편부모 가족에게도 조모가 지지체제로써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연(1985). 아버지의 자긍심 수준, 아동 개인적 변인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43-150.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자(1978).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4), 75-84.
- 김숙영(1984).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인성과 자아개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희(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박수경(1992).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익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정기(1993).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화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1.
- 안경영(1992). 어머니의 언어 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선영(198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수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1980). **한국 전통 사회의 유아 교육**. 서울:정민사.
- 유영주(1985).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현선(1983).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2, 1-27.
- 이윤숙(1987).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의식구조. **동덕여자대학교 논총**, 17, 371-383.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회**, 10, 105-124.

- 최정혜·김태현(1991).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회*, 11(2), 212-234.
- 한유미(1991).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인향(1993). 취업주부의 가족자원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mato, P. R.(1986). Marital conflict, the parent-child relation and chil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35, 403-410.
- Baranowski, M. D.(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575-584
- Belle, D., & Longfellow, C.(1984). *Turning to others: Children's use of confidants*. Paper at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Bengtson, V. L.(1985). Diversity and symbolism in grandparental roles. In V. L. Bengtson., & J.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Burton, L. M.(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 744-751.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Gecas, V., & Schwalbe, M.(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Gladstone, J. W. (1988). Perceived changes in grandmother-grandchild relations following a child's separation or divorce. *The Gerontologist*, 28, 66-72.
- Kivnick, H. Q.(1982). Grandparenthood: An overview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The Gerontologist*, 22, 59-66.
- Kornhaber, A., & Woodward, K. L.(1981).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Y: Anchor press/Doubleday.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arson, J. L., Hunter, A. G., Ensminger, M. E., & Kellam, S. G.(1990). Black grandmothers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 Diversity in structure and parenting involvement in the woodlawn community. *Child Development*, 61, 434-442.
- Presser, H. B.(1989). Some economic complexities of child care provide by grand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81-591.
- Robertson, J. F.(1976). Significance of grandparents: Perception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16, 91-103.
- Troll, L. E.(1983). Grandparents: The family watchdogs.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 A.: Sage